

News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한국경제TV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4월 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

금리 낮춰라...대놓고 금융시장 개입하는 여당

한국경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년에 수십조원을 버는 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1%포인트 정도는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 한은의 기준금리가 연 0.5% 수준인데 은행 대출금리는 연 3~4%에 이른다"며 "관치금융이 아니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

'진옥동 운명의 날' 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심 재개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 제재심에서는 CEO에 대한 징계 여부가 쟁점

청년·무주택자 LTV '10%+10%' 완화, 최대 70%까지 높일듯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치를 금융위 원안인 60%에서 70% 안팎까지 높이는 방안을 정치권과 최종 조율 중. 금융위 원안은 무주택자에게 LTV 최대 60%(50%에 10%포인트 혜택)였으나 70% 안팎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불똥'...캐롯손보, 쓴 만큼 보험료 내는 서비스 중단

머니투데이

캐롯손해보험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타격을 받았다. 수급이 꼬이면서 핵심 기기 생산이 중단돼 당분간 신규 가입자에게 쓴 만큼 보험료를 받는 상품을 제공하지 못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캐롯손보는 지난 3월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운행 데이터 측정 장치인 '캐롯플러그' 제공을 중단

달러보험, 사실상 퇴출 수준... 금융당국 "손실날 경우 보험사가 책임"

머니S

금융당국이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들에게 달러보험 위험회피(한 헷지) 보증비용을 마련을 요구.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보사들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달러보험은 사실상 퇴출 수준을 밟게 될 전망

예탁금 75조원 사상최고 경신... 줄이는 `IPO 대어` 머니무브 이끈다

디지털타임스

공모주 청약과 주식 투자 열풍으로 투자자예탁금이 사상 처음으로 75조원을 넘어섰다. 삼성·KB·하나 등 일부 증권사의 경우 이미 지난해 1년간 누적 IPO 실적을 넘었다. 지난 20일 투자자예탁금은 75조788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4일(63조172억원) 이후 4거래일 연속 투자자예탁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용융자잔고, 6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22조5416억원

이데일리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신용거래용자는 7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전 거래일보다 3630억원 증가한 22조9046억원을 기록. 시장별로는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거래용자가 전 거래일보다 2339억원 증가한 12조5646억원, 코스닥 시장 신용거래용자는 1290억원 증가한 10조3400억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